

# 별주부전

때: 옛날'곳: 바닷속 용궁과 숲속

나오는 인물: 토끼, 자라, 용왕, 문어 장군, 상어 대신, 갈치 대신, 도미 의원, 꽃게 대신,  
복어 대신, 황소

## 제 1 장

용왕이 누워있고,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상어 대신: (수염을 쓰다듬으며) 어허, 이거 큰일이오. 용왕님 병환이 점점 더 해지고  
있으니 무슨 방법이 없겠소?

문어 장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병환이 나아지질 않으니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치르겠구려.

꽃게 대신: (왔다 갔다 하는 문어 장군을 못마땅하다는 듯이 흘겨보며) 이봐요, 문어  
장군. 가만히 좀 계시오. 정신 사납소.

문어 장군: 아, 누군 이려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시오? 나도 속이 타서 그러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꽃게 대신은 쓸데없이 참견말고 용왕님 병환고칠  
방법이나 생각하시구려.

꽃게 대신: 뭐요? 그럼 내가 놓고만 있단 말이오?

(문어 장군과 꽃게 대신이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자, 주위가 시끄러워진다.  
이때, 상어 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앞으로 나선다.)

상어 대신: 아니, 이거 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한단 말이오? 썩  
물러 나시오.

(모든 신하들이 움찔하며 몸을 숙인다. 이 때, 용왕이 눈을 뜨면서 몸을

일으켜 세운다.)

용 왕: (힘없는 목소리로) 왜 이리 소란스런운고?

갈치 대신: (재빨리) 네, 용왕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왕님 병환이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사옵니다.

용 왕: (탄식하듯이) 우리 용궁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아무도 없단 말이오? 아, 이제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소.

신하들: (울음 섞인 목소리로) 황공하옵니다. 마마.

(그 때, 복어 대신이 들어오면서 머리를 조아린다.)

복어 대신: 아뢰옵니다. 먼 바다에 사는 도미 의원이 용왕님의 병환을 고쳐 보겠다고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꽃게 대신: (통명스럽게) 도미 의원이라고?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 보는걸?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고 이르시오.

문어 장군: (얼른 팔을 내저으며) 아니오. 그래도 먼 바다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무엇인가 방법이 있지 않겠소? 어서 데려오도록 하시오.

꽃게 대신: 문어 장군은 내 말끝마다 토를 다니 내게 무슨 감정이라도 있는거요? (집게발을 치켜세우며 화를 낸다.)

문어 장군: 아니, 내가 뭐 못 할 말을 했소? 꽃게 대신이야말로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이구려.

상어 대신: 또 왜들 이러시오? 그만들 하고 도미 의원이나 만나 봅시다.

## 제 2 장

안경 쓴 도미 의원이 용왕을 진맥하고 있다.

용 왕: 그래, 내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 내었느냐?

(도미 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가웃 거린다.)

상어 대신: 여보게, 얼른 아뢰지 않고 무엇 하는가?

도미 의원: 용왕님 병환은 너무나 이상해서 물 속 세상에서는 도저히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용 왕: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아직 바닷속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신하들: 마마, 망극하옵니다.

도미 의원: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마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 물 속에는 없지만 육지에는 마마의 병환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사옵니다.

용 왕: (눈을 크게 뜨면서) 무엇이라고?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 그 약이 도대체 무엇인고?

도미 의원: 네, 육지에 사는 토끼라는 짐승의 간이옵니다.

용 왕: 토끼의 간이라고? 그럼 어서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 오도록 하여라.

도미 의원: 하지만, 토끼는 워낙 재빠르고 껍이 많아서 땅 위 사람들도 잡기 힘든 짐승입니다.

용 왕: (여러 신하를 둘러보면서) 누가 토끼를 잡아 오겠느냐?

(신하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서로 눈치만 살핀다.)

용 왕: 왜들 대답이 없소? 상어 대신이 갔다 올 수 있겠소?

상어 대신: 마마, 항공하옵게도 저는 물 속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도 죽사옵니다.

용 왕: 어허, 그렇다면 아무도 갈 수 없단 말이냐?

문어 장군: (음흉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마, 꽃게 대신이라면 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저번에도 꽃게 대신이 육지로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들었사옵니다.

용 왕: (반가운 표정으로 꽃게 대신을 보며) 오, 그게 사실이요? 꽃게 대신, 다녀올 수 있겠소?

꽃게 대신: (깜짝 놀라면서) 아, 아닙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육지에 자주 다녀오셨지만 저는 땅을 밟아 본 적이 없사옵니다.

문어 장군: 아니, 꽃게 대신, 무서우면 무섭다고 할 것이지, 할아버지는 왜 들먹이는 거요? 창피하지도 않소?

상어 대신: 아아, 그만들 하구려. 지금이 다룰 때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마마, 별주부 자라를 보내면 어떻겠사옵니까?

복어 대신: 아, 그거 좋은 생각이요. 자라는 본디 물 속과 육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들었소.

상어 대신: (큰 소리로) 여봐라, 자라를 불러 오너라.

(잠시 뒤, 자라가 들어와서 용왕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용 왕: (자라를 보며) 그대가 육지에 가서 토끼를 잡아 올 수 있겠는가?

자라: 이 한 몸 다 바쳐서라도 토끼를 잡아 오겠사옵니다.

용 왕: 오, 가륙한지고. 그대는 정말 보기 드문 충신이로구나.

### 제 3 장

갯가지 꽃이 피어 있는 숲 속에서 동물들이 노는 모습을 자라가 살펴보고 있다.

자라: (손에 든 토끼 그림을 힐끔힐끔 보면서) 음, 이러다가는 언제 토끼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저기 뿔 달린 이상한 친구에게 한번 물어 보아야지. (들고 있던 토끼 그림을 펼쳐 보이며) 여보시오, 뿔난 양반! 이렇게 생긴 친구 혹시 못 봤소?

황소: (눈을 깜벅거리며) 글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 가만있자, 아, 저 쪽

소나무 언덕에 사는 토 선생이구먼.

자라: (혼자말로) 음, 토 선생이라면 내가 찾던 토끼일 거야.

황소; 그런데 당신은 뉘시오? 참 이상하게 생겼구려. (자라의 몸을 한 바퀴 돌아본다.)

자라: (움찔 놀라며) 아, 저는 토 선생의 오랜 친구인데,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랍니다.

(자라는 고개를 숙 내밀어 황소에게 인사를 하고 부리나케 언덕으로 달려간다.)

#### 제 4 장

자라: (소나무 밑에서 즐고 있는 토끼를 보고 기뻐하며) 웬지, 이 녀석이 바로 토끼로구나.

(토끼를 흔들어 깨우며) 이봐요, 토 선생! 안녕하시오?

토끼: (깜짝 놀라 큰 귀를 쫑긋 세우며) 당신은 누구시오?

자라: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저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별주부 자라입니다.

그토록 유명한 토 선생을 만나 뵈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토끼: (한 발짝 다가서며) 아니, 바닷속 용궁에까지 내 이름이 알려졌던 말시오?

자라: (기회를 놓칠세라) 아무렴요. 영리하고 잘생긴 토 선생을 모두 보고 싶어 야단들이지요.

토끼: (어깨를 으쓱하며) 하기야, 육지에서는 나를 몰라보는 이가 없소이다마는 용궁에까지 소문이 났다 하니 조금은 놀랍소.

자라: 토 선생, 이 곳 재미는 어떻습니까?

토끼: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오. 봄에는 진달래, 개나리 활짝 피어 벌과 나비 춤을 추고, 여름에는 푸른 소나무 정자 밑에 매미 소리 들리니,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소?

자라: (고래를 좌우로 흔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허, 토 선생! 당신은 거짓말을 참 잘 하는구려. 생각해 보시오. 긴 겨울동안 굴 속에서 떨다가 봄 소식을 얻어듣고

풀잎 먹고자 나오면 사나운 독수리가 쏜살같이 따라오니 데굴데굴 굴러서 어느 틈에 꽃구경할 것이며, 여름이면 마른 목 축이려고 시냇가를 찾노라면 밭을 매던 농부들이 호미들고 뒤쫓으니, 가슴이 벌렁벌렁, 달아나기 바쁘잖소?

그러니 어느 때나 마음 편할 날이 있겠소?

토끼: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당신은 어찌 그리 내 생활을 잘 아시오? 정말이지, 나는 이 한 목숨 부지하느라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소.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느라고 이제는 눈까지 빨개졌다오.

자라: 산 속 친구들에게 들으니 살아가기가 날로 험해져서 모두들 좋은 곳을 찾아 떠난다던데, 당신은 왜 떠나지 않으시오?

토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나는 본디 친구들을 널리 사귀지 못하는데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소.

자라: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아, 토 선생, 걱정 마시오. 나와 함께 우리 용궁으로 갑시다 당신은 털이 백옥같이 흰데다가 눈 또한 홍보석같이 잘 생겼으니, 용왕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실 것이오.

## 제 5 장

자라가 바닷속 용궁으로 토끼를 데리고 와서 용왕 앞에 선다.

용 왕: (긴 수염을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앓고 있는 병에 네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별주부를 땅으로 보내어 너를 데려오게 하였느니라.

토끼: (깜짝 놀라며) 아니, 제 간을 잡수시겠다고요?

자라: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토 선생, 미안하게 됐구려. 하지만, 산 속의 조그만 짐승이 용왕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너무 서러워 마시구려.

용 왕: (신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여봐라, 어서 저 토끼를 묶어라.

토끼: (흥분을 가라앉히며 침착하게) 잠깐, 저같이 미천한 짐승이 용왕님을 위해 죽게

됨은 영광이옵니다. 그러나 꼭 아뢰야 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용 왕: (다가서는 신하들에게 손짓을 하며)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나 보자꾸나.  
어서 말해 보아라.

토끼: (용 왕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저는 다른 짐승과는 달리 아침에는 이슬을 먹고  
저녁에는 산삼을 먹습니다. 그러니 저의 간이 만병통치약일 수 밖에도. 그래서  
저를 만나기만 하면 간을 달라는 짐승들이 많아, 밖에 나돌아 다닐 때에는  
바위틈

깊은 곳에 제 간을 숨겨 놓고 다닙니다.

용 왕: (놀라는 표정으로) 아니, 그러면 지금은 간이 없다는 말이나?

토끼: 네, 별주부께서 용왕님의 병환에 대하여 알려 주시지 않아 바위틈에 간을 둔 채  
그냥 따라왔나이다.

자라: (화난 음성으로) 참으로 간사한 놈이로군. 어찌 간을 넣었다 빼었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용왕님을 속이려 하다니 용서할 수가 없구나. 여봐라, 이 놈을 어서  
묶어라.

토끼: (애써 웃어 보이며) 용왕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제 배를 갈라도  
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용왕님의 병환은 영영 고칠 수가 없사옵니다.

용왕: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신하들이 잠시 수군거리다 곧 조용해진다.)

상어 대신: (앞으로 나서며) 마마, 아무래도 토끼의 말을 믿어 보는 것이 좋사옵니다.

문어 장군: 토끼의 말에는 의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사오나, 자라와 함께 육지로  
보내어 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용 왕: (갑자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보게, 토 선생! 정말 간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

토끼: (기쁨을 짐짓 감추며 진지하게) 용왕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그까짓 간을 무엇 때문에 아끼겠습니까? 산 속으로 가서 간을

가지고 돌아온 뒤, 영원히 용왕님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용 왕: (감격하여) 오, 정말 가늠한지고!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노라.

## 제 6 장

육지에 도착하자, 자라의 등에서 훌쩍 뛰어내린 토끼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자라: (토끼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보게, 토 선생! 우리의 갈 길이 멀고  
용왕님의 병환이 가볍지 않으니, 어서 간을 가지고 와서 용궁으로 돌아가세.

토끼: (깔깔 웃으며) 이 미련한 자라야. 몸 안에 붙어 있는 간을 어찌 마음대로 꺼낼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꿈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생각하면 내 친구들을 불러 혼을 내주고 싶지만, 나를 업고 오가느라 수고한 걸 생각하여 목숨은 살려 주는 것이니. 빨리 돌아가서 용왕에게 부질없이 애쓰지 말고 죽을 때를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토끼가 말을 마치고 깔깔 웃으며 소나무 숲으로 강충강충 뛰어가자, 자라는 토끼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본다. 바다 물결 소리와 숲 속의 새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막이 내린다.

### 말하기 듣기 쓰기 5-1 142 쪽

1. 인물과 배경에 주의하며 ‘별주부전’을 읽어 봅시다.
2. ‘별주부전’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을 알아봅시다.
3. ‘별주부전’의 장면은 어떤 순서로 바뀌었는지 정리하여 봅시다.



4. 알맞는 표정과 목소리로 다음을 실감나게 말하여 봅시다.

문어 장군: (음휴안 표정을 지으면서) 마마, 꽃게 대신이라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도 꽃게 대신이 육지로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들었사옵니다.

토끼: (어깨를 으쓱하며) 하기가, 육지에서는 나를 몰라보는 이가 없소이다마는,  
용궁에까지 소문이 났다 하니 조금은 놀랍소.

용 왕: (감격하여) 오, 정말 가륙한지고!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노라.

5. ‘별주부전’을 연극으로 꾸미기 위하여 할 일을 정하여 봅시다.

- 배역 정하기

- 무대 꾸미기

6. 친구들과 ‘별주부전’을 연극으로 꾸며 봅시다. 그리고 어떤 점이 잘 되었는지 이야기를 주고 받아 봅시다.

## 내가 재판장이라면

- ◆ 토끼님과 자라님은 지난번 용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자라는 별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자라는 저에게 용궁에 맞난 음식과 진귀한 보배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 용궁에 가면 큰 상을 줄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갔습니다.

용궁에 다다르자, 자라는 뻘뻘스럽게도 멀쩡한 제 배를 갈라 간을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죽을 뻘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인데다가 흉악하기까지 한 자라한테 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이 언제 또 이런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재판장님,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리고 간 것은 토끼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못된 동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왕님께서 몹시 편찮으셨습니다. 토끼의 간밖에는 약이 없다는데, 그걸 구하려면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왕을 살리기 위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토끼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토끼는 제멋에 겨워서 달콤한 말에 속았습니다.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토끼는 용궁에 따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끼님과 자라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 -----.

1. 토끼와 자라의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가 재판장이라면’을 읽어 봅시다.
2. ‘내가 재판장이라면’을 읽고, 토끼와 자라의 의견을 정리하여 봅시다.

토끼의 의견	
자라의 의견	

3. 토끼와 자라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여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토끼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라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li></ul>

4. 토끼, 자라, 재판장의 역할을 정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 봅시다.

읽기 3-2 95 쪽

5. ‘내가 재판장이라면’을 다시 읽고, 재판장이 되어 내 생각을 간단하게 써 봅시다.